



전북대 전 · 현직 법전문원 교수,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세 친구의 우정이 제자들에게 대한 애정을 담은 발전기금으로 환원됐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송문호(법전문원장), 김동근(前 법전문원장) 교수 그리고 전북대 법전문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남준희 변호사(법무법인 '온고을')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성·도덕성·국제성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 남로타리클럽, 추석 맞아 '사랑의 쌀 나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남로타리클럽(회장 김형권)에서는 지난 2일 민관협력 '천년 장항복드림' 프로젝트 협약 및 노숙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15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다. 김형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웃들과 훈훈한 명절 보내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주남로타리클럽은 2013년부터 시작한 노숙동 주민센터 외의 19번째 프로젝트로 회원 모두가 넉넉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기부행사에 동참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산학협력단, 구르는돌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상진 단장)은 메타버스 게임과 홀트레이닝 융합 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지난 7월 (주)구르는돌(대표 서문성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구르는돌은 아나비의 메타버스 홀트트니스 서비스 '아핏 사이클'의 앱을 개발한 기업이다. PC/모바일 MMORPG 기반 VR/AR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했고, 게임, 웹툰, 교육, 블록체인 등의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박규남 연구팀(물리치료학과 정시우 교수 외 7명)은 웨어러블 센서(무선이어폰)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홀트레이닝 시스템을 개발, (주)구르는돌과 함께 메타버스 홀트트니스 서비스에 적용해 의료, 건강, 스포츠 등의 융합사업을 진행기로 했다. 박 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홀트트니스 동안에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만으로 코어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헤드-코어 시스템(무선이어폰 및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 홀트트니스 동안에 코어가 대칭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듣고 있는 음악으로 신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피드백 기술을 국제특허로 등록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실내사이클을 타는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이용한 인공지능으로 신체 기능 수준을 평가하고, 라이더에게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전원 합격

김제시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현영삼)에서 학업을 이어오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난 4월 9일과 8월 11일에 실시된 2022년 1·2회 검정고시에 총 26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은 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격취득 및 취업 등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간다. 김제시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대비반과 1:1 멘토링을 통한 개별 맞춤 학습, 교재 및 교과별 인터넷 강의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영삼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고, 검정고시 대비반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꿈드림' 사업은 청소년 개인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제=곽태 기자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다'

무주군민의 장 수여식... 반딧불축제 폐막식서

무주군은 4일 등나무 운동장에서 열린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폐막식에서 제38회 군민의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화체육장 김민재 씨(44), △산업근로장 유중석 씨(67), △한향토공익장 김문기 씨(72), △효행장 장경숙 씨(61) 등 4명이다. 군민의장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지역주민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으로, 군은 지난달 18일 무주군민회의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문화체육장 김민재 씨(44), △산업근로장 유중석 씨(67), △한향토공익장 김문기 씨(72), △효행장 장경숙 씨(61) 등 4명이다. 문화체육장 김민재 씨는 20여년을 태권도 관련 일을 하며 무주군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타지역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를 무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태권도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산업근로장 유중석 씨는 현재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 복숭아분과 회장으로 지난 33년간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 서 왔으며, 무주 특산물과 발전 기능 품목 연구 활동을 꾸준히 펼치면서 지역 농가소득 증

문화체육장 김민재	산업근로장 유중석	한향토공익장 김문기	한향토공익장 장경숙	효행장 장경숙

대와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향토근로장 정명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각종 지역 행사와 수해복구 등 공익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르신 돌봄 사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무주군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향토공익장 김문기 씨는 19대 재경무주군민회장을 맡아 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무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장학회와 체육진흥회에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 인재 양성과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효행장 장경숙 씨는 37여 년간 시부모와 시할머니를 봉양하며 효부로서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동생의 딸까지 부양하는 등 몸소 효와 사랑을 실천했으며, 특거노인 생활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며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인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식창의센터 · 맛손클럽 교육생들, 소외계층에 추석선물 전달

추석을 앞두고 한국전통문화전당과 '맛손클럽' 교육생들이 지역 소외계층에게 특별한 추석선물을 전달,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한식창의센터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음식을 통해 시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31일 '2022 추석맞이 맛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나눔행사에서 센터가 운영 중인 시민 참여형 모임인 '맛손클럽'의 1기 교육생들과 함께 그간 배운 실력들을 뽐내고 응징도 전달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식창의센터와 맛손클럽 교육생들은 지역 내 소외계층 150가구에 전달할 선물인 '맛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센터 내 조리체험실 '사무방'에서 전통과자 쌀강정을 손수 만들고 일일이 포장까지 했다. 또 이웃에게 전할 짧은 편지와 맛꾸러미 제작 영상 링크를 담아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나눔행사에 참여한 한 맛손클럽 교육생은 "이번 행사 참



여를 통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약소하지만 정성을 담아 만든 맛 꾸러미를 맛있게 드시고 행복 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태 원장은 "추석을 맞아 전주시민으로 구성된 맛손클럽 교육생들과 함께 맛 꾸러미를 제작,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김대경 교수, 한국신뢰성학회 차기 회장 선임

전북대학교 김대경 교수(통계학과)가 (사)한국신뢰성학회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2년 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사)한국신뢰성학회는 신뢰성 이론 발전과 산업현장 협력을 통한 산업계 신뢰성 기술 향상 등을 위해 1999년 12월 창립된 학회다. 통계와 산업공학, 기계, 전자,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체, 국방 분야 등에 신뢰성 교육과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김대경 교수는 "역대 회장님들이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신뢰성 학문의 발전과 국내의 산업현장 학술교류의 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내외 유관 다른 학회와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전북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7년부터 전북대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은성 기자



임실군, 오수 의견공원 · 의견관광지 환경정비

임실군이 추석을 맞아 오수 의견공원과 의견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환경정비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를 통해 관광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공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며 잡초 및 덩굴류 등을 제거했다. 또한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개선 및 조경수 전지 작업을 통해 귀성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의견공원과 의견관광지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청정 임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민연금나눔재단, 남원시노인복지관 추석 후원

남원시는 국민연금나눔재단(재단)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남원시노인복지관(복지관에) 지난 1일 명품시과 25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으며, 복지관측은 당일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부는 명절 전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은 매년 '국민연금카드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남원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천연화장품 공예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한편 복지관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노후준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일토씨엔엠,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

환경전문기업 (유)일토씨엔엠(대표 최규연) 직원 40여 명은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달 31일과 9월 1일 행사장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는 무주군 환경기초시설인 광역전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로, 퇴근 후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 줍기에 열을 올렸다. 광역전처리시설 김윤철 소장은 "이번 행사는 일토씨엔엠이 도내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환경축제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라며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무주반딧불축제가 환경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환경축제로 지난 8월 27일 개막해 9월 4일까지 무주군 한풍루 일원 등지에서 펼쳐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곳곳에서 홀로 어르신 위한 생필품 전달

정읍시 곳곳에서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과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위문하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일 수성동 주민센터와 정명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한가위를 맞아 한웃으로 생필품 꾸러미를 구입해 소외계층과 홀로 사는 어르신께 전달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하고 명절 인사를 나누기 위해 직접 위문했다. 수성동 주민센터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조손가정을 위문했고 정명동 주민센터는 정명동의 최고령 어르신과 3대가 함께 살며 4명의 아이가 있는 다자녀가정을 방문했다. 이일순 최고령 어르신은 "홀로 사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행숙 수성동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위문 물품이 잘 전달된 것 같아 기쁘다"며 "다가오는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숙 정명동장은 "코로나19로 자녀와 이웃들과의 왕래가 줄어들어 요즘 홀로 사는 어르신 맥을 방문하니 무척 반갑게 맞이해주셨다"며 "어려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석면안전협회, 임실군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사)한국석면안전협회가 2일 임실군을 방문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사)한국석면안전협회 김병찬 회장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호남권 지역본부 등 6개 지부를 개소하였으며 자치단체와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기치 아래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협약기관이 되고자 장학금 기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실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총 40억6천만원을 투입해 총 1,455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해 왔다. 이에 군에서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전문성이 있는 한국석면안전협회와 2017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증대해 왔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한국석면안전협회 김병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임실군 관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육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